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교회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집사, 권사 안수)이 7월 19주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안수 받는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는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3.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인도자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교재 7과를 공부합니다(3시 15분, 느헤미야실).
4. 각 공동체장과 인도자들은 공동체 식구들의 형편을 살피며 신앙적인 용기와 격려의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5. 임직을 위한 향존 직분자 훈련을 오늘로 마칩니다.
6. St David's 교회를 관리하는 노회원들이 교회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기록한 생각을 가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7.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삶의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또 주보를 잘 살피 여러 순서를 맡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8.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9. 이광희 장로, 이규임 권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주소 67 Insoll Avenue, Hamilton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월 교회사역일지**  
7월 19일 (주일) 창립주일 임직식  
7월 26일 (주일) 권사 기도회  
7월 29일 (수) 비누아투, 베트남 공동체 주관 예배

**7월 기도 순서**  
7월 12일 (주일) 박병민 장로  
7월 15일 (수) 임태원 집사  
7월 19일 (주일) 손조훈 집사  
7월 22일 (수) 장경희 집사

**7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자경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7호 2020.07.05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96:1-3	인도자
✧찬송	10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4장	다함께
대표기도	-----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9:1-7	인도자
찬양대찬양	주께 영광을 돌리세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다시복주시는 하나님 2	이태한 목사
찬송	429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응답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 청년예배

금주기도 이예찬 형제  
다음주일 임윤호 형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도	이혜경 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42-47
설교	처음 그 교회 이태한 목사
찬송	505장
주기도	다같이

## 선교란

###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Covid-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선교 지형과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불명확, 불확실, 불안정의 3불 상황이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방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후방에서 변함없는 기도와 응원의 손길로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곧 선교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주시니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다만,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실 것은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여기 캄보디아에서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현장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이곳 캄보디아는 2020년 연말까지 모든 것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모든 사립/국공립 유치원, 학교가 휴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며 다중이 모이는 모든 집회 및 종교의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영상으로 SNS로 각 가정이나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여행 비자 포함 모든 종류의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고강도의 강제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캄보디아 자국민들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 심각성에 무감각해지는 듯,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외국인들만 압박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은 '타향살이하는 설움 많은 나그네'라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후방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의 끈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현장 선교사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히려, 코로나19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형식, 이은주 선교사 드림

### 기도 제목

-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 선교사 부부가 영육으로 강건하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드러내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기도와 말씀 훈련에 열심히 하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재하도록.

## 나눔란

### 2020년 6월 28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8:20-9:7

노아의 신앙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태도이기에 노아의 신앙 태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홍수와 심판과 방주에 대한 이해 못 할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어떤 질문이나 자기주장 없이 그저 경청하여 듣고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6:9)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 10:33) 고백한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한 사무엘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시 62:1-2)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현실을 극복할 힘입니다:** 쓰나미가 휩쓸어 간 폐허보다 더 참혹했을 때 홍수 끝의 참혹한 현실에서 살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예배는 습관적, 형식적 예배가 아닌 진실한 예배, 곧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절박함이 사라지고 부와 안정의 시대가 되자 간절한 예배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렘 29:12-13.)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한 간절한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 하리라”하셨습니다(8:21). 생명을 걸고 절박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예배는 세상도 바꾸고 나와 가족을 바꿉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배는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힘이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셨습니다(9: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1:28) 그러나 죄로 잃어버린 이 복이 노아로 인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고 버리기보다는 또 기회를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은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렘 3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신 30:5).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됴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눅 15:27)와 같이 “다시” 시작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있는데도 나태함을 변명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영적 무감각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갈보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 주간 성경 묵상: 시편 118 - 145편

###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